

# 전주시, '제2의 포켓몬 고' 만든다

###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서비스 제공기로

전주시가 최근 국내 가입자만 7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인 '포켓몬 고' 같은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전주시는 증강현실 등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한옥마을로 집중된 전주관광의 외연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증강현실기술과 문화콘텐츠(CT)산업을 융합한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증강현실은 위치(GPS)기반 현실정보와 3차원 가상콘텐츠를 결합해 스마트폰 기기 등을 활용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증강현실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업체들이 '포켓몬 고'와 같은 우수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증강현실기술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융합기술이 접목된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되면 전주만의 가상·증강현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교육, 관광 등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증강현실 융합 콘텐츠 상용화 분야'와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마트 융합콘텐츠 분야' 등 2개 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증강현실기술을 토대로 지역 내 체험 가능한 문화관광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례로,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만의 역사를 활용해 도시 곳곳에 숨겨진 왕의 보물을 찾는 게임서비스가 증강현실 콘텐츠로 제작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전라감영과 종래지관, 풍문거리, 남고산성, 덕진공원 등 전주시 주요 관광지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한옥마을로 편중된 관광객들을 전주시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체류시간도 늘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제작된 증강현실 콘텐츠를 올 연말부터는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오곡으로 만든 한과입니다”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8일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들이 우리 집콕의 효능과 기능성을 알리기 위해 오곡으로 만든 한과를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융합콘텐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전통문화 기반의 증강현실 콘텐츠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스토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최근 3년 이내에 완성된 콘텐츠 개발 실적을 보유한 전라북도 소재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과제를 접

수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 등에는 콘텐츠 개발과 제작, 마케팅, 유통 등 콘텐츠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관련 제반 비용으로 증강현실(AR)융합 콘텐츠 상용화 분야 1억2000만원과 스마트 융합콘텐츠 분야 3000만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T산업실063-281-41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기자

## 구속이사장이들 휴가처리교장등 입건

### 음주운전 구속 재판반던 아들 휴가 처리해 급여 지급 편의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혈중알콜 농도 0.1%로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 중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사장 아들들을 병가 및 휴가로 처리해 조직적으로 편의를 봐주던 교장 서모 씨 등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 6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이사장 아들 유모씨(42)가 지난해 7월 21일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되자 징계처리가 아닌 병가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법정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학교 이사장의 눈치를 보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휴가로 처리해 5개월간 급여를 정상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과정중 드러나 경찰에게 넘겨졌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학교의 내규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교직원 은 퇴직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들이 이사장의 눈치를 보며 조직적으로 공모해 유씨를 감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AI 원천차단 예방조치 강화

전주시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원천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최근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주천에서 발견된 왜가리와 증대백로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예방 및 소독 등 예방조치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시는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

하기 위해 한우 31호(630두)와 젖소 1호(67두), 돼지 2호(3640두), 염소 4호(28두) 등 총 38호(4365두) 등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및 임상예찰,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9일까지 한우·젖소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에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벌여

전주시의회 상임위가 현장을 방문해 의정활동을 벌였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오영근 의원)가 8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 청취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하 의원)도 노송동 물양말에 위치한 전주시 사회적경제·도

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2017년 주요사업 방향 및 계획 등을 청취하며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이기동 의원)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업무 보고 청취 및 입주기업 순방 등을 벌였다.

/김영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생활문화 개선 토론회 개최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중대장 윤수홍)는 9일 100여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부대 생활문화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동1중대 및 타부대의 복무규율 위반사례를 통해 동일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스마트하게 화합하는 강한 부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복무규율 위반 사례 교육 후 중대장

이하 지휘요원들은 대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복무기간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윤수홍 중대장은 “대원끼리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었다”며 “대원들이 복무기간을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보람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자기개발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전라감영 테마거리, 감염~객사 구간 공사 착수

### 완산경찰서에서 풍패지관까지 2차 공사 오는 3월 착수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길인 '전라감영 테마거리'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추면서, 전주시가 올해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라감영 테마거리는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과 현재 복원·재창조 공사가 한창인 전라감영, 보물 제583호인 풍패지관(객사)을 잇는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 거리로,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를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풍남문에서 풍패지관까지 기존 좁은 차도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전라감영 테마

거리 조성공사' 중 완산경찰서에서 풍패지관까지 280m구간에 대한 2차 공사를 오는 3월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22억원 등 총 44억원을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며 걸기 좋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앞서 지난해 풍남문~경찰서 구간 220m 구간에 대한 보행로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기존 양방향 차로중심의 감영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도와 차로 구분을 통해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거친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차량 속도를 줄이고, 불타드름과 가로화

단, 소규모 워터 등도 조성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 전신주를 제거, 풍남문~전라감영~전주객사로 이어지는 전라감영 테마거리의 보행자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2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과 건물주, 상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풍남문과 전라감영, 풍패지관을 따라 원도심 지역까지 확산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청사진도 함께 소개했다.

/김영재기자

## 대입 청탁 대가로 금품 행인 전북현대 축구단 코치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8일 현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 코치로 고교 감독 시절 대입청탁을 명목으로 학부형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김 코치는 고교 감독으로 재임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자녀를 수도권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도 같은 이유로 다른 학부모에게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코치는 현금을 받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확보해주고 대학 감독에게 추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